

보도시점 (온라인) 2026. 6. 17.(수) 12:00
(지면) 2026. 6. 18.(목) 조간

착한가격에 가스 안전까지 더했다 주민이 더 '안심하는 착한가격업소'

- 행안부-한국가스안전공사, 착한가격업소 가스 안전 협약 체결(6.17.)
- 2028년까지 매년 1천여 개소 집중 점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외식 환경 조성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6월 17일(수) 충북 음성군에 있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착한가격업소 가스 안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행정안전부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원석 안전관리이사가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착한가격업소의 안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스시설 위험 요인 점검 지원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가 지정·운영하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물가 안정 정책이다. 5월 말 현재 전국 12,447개소가 운영 중이며 주변 상권 대비 낮은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날 협약식은 지난 2023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후 정성 어린 집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 지역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게에서 체결되어 의미를 더했다.

>> 전기 이어 가스까지 안전망 확대, 민관 협동 예방 중심 안전관리 강화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착한가격업소 전기 안전 점검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 협약으로 가스 안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이 민관 공동 협력을 통해 한층 더 촘촘하게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매년 1천여 개 착한가격 업소를 대상으로 ▲가스 누출 여부 점검, ▲가스시설 설치 상태 적정성 확인, ▲안전장치 작동 상태 등 종합적인 안전 점검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가스 안전 수칙 교육 등을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 전문 장비 활용한 체계적 점검으로 국민이 안심하는 외식 환경 조성

특히, 착한가격업소는 가스 사용 비중이 높은 외식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문 검사 인력과 첨단 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물품 지원, ▲지방공공요금 지원, ▲지도 플랫폼 표출, ▲카드사 할인 혜택, ▲홍보 행사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재정·홍보 지원에 더해 안전 분야의 지원이 강화되면서, 착한가격업소 정책이 한층 더 내실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원석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는 “가스 안전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착한가격업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	책임자	과 장	채경아 (044-205-3902)
		담당자	사무관	김시원 (044-205-3922)

